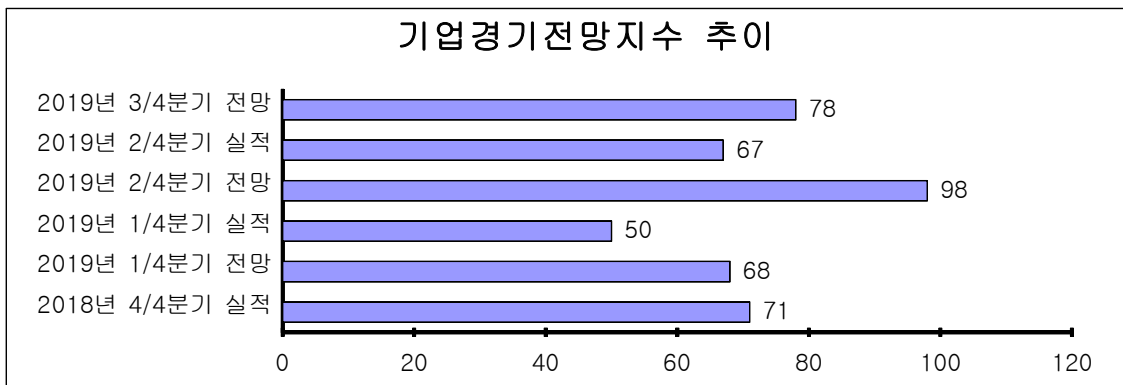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조관섭)는 최근 관내 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9년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 분기보다 '20' 포인트 하락한 '78'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1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8년 4/4분기 실적	2019년 1/4분기 전망	2019년 1/4분기 실적	2019년 2/4분기 전망	2019년 2/4분기 실적	2019년 3/4분기 전망
체감경기	75	83	50	100	75	76
매출액	74	65	53	100	71	91
영업이익	70	65	43	97	59	67
자금조달 여건	67	70	60	92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9년 3/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76, 매출액은 91, 영업이익 67, 대체적으로 3/4분기 전망은 2/4분기 전망보다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 상황 속에 응답 업체의 58.3%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달성(근접)하였다고 답하였다.

목표치 미달에 응답한 업체는 41.7%로 세부 이유는 ‘내수침체 장기화’ (64.3%), ‘고용환경 변화’ (14.3%), ‘기업관련규제’ (14.3%)로 집계 됐다.

응답 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는 ‘국내외 경기둔화 매출(수출) 부진’ (37.5%)이 가장 높았으며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 증가’ (33.3%), ‘미래수익원 발굴’ (20.8%), ‘자금 확보의 어려움’ (4.2%),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업체의 2분기 대비 3분기 자금조달 상황을 전망하는 항목에서는 ‘불변’ (75.0%), ‘악화’ (16.7%), ‘개선’ (8.3%) 순으로 뽑았으며 ‘악화’ 에 답한 업체의 세부 이유는 ‘판매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75.0%), ‘영업이익 감소 등 수익성 저하(25.0%)로 답하였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묻는 사항에는 ‘있다’ (54.2%), ‘없다’ (45.8%) 응답업체 절반 가량이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없다’ 에 응답한 업체의 세부 이유는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 (46.2%)가 가장 높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23.1%), ‘공정 자동화 등 인력 대체’ (15.4%), ‘구조조정 등 사업규모 축소’ (7.7%),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 (7.7%)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기간 : 2019. 6. 12 ~ 6. 21 (휴일제외 10일 동안)

○조사대상 : 영주상공회의소 관내 제조업체

○조사방법 : 전화, FAX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BSI전망치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임